

##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성경말씀: 욥34:1-37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이 끝남(4-31장). 모두 침묵한다.

젊은 사람 엘리후가 침묵을 깨고 등장함, 32-37장까지 6장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 진술

1.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33), 2. 정의로우시다(34-35), 3. 위대하시다(36-37)

33장에서 그는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려줌.

고통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18)

그 결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24). 빠질 때에도 구속자를 통해 구출해 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대속물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신학이라는 학문: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성품, 참으로 귀중한 것, 살고 죽는 것 결정, 가장 중요한

지식, 그런데 어렵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대 공간의 알 수 없는 분을 알려고 노력하므로(롬11:33-36)

성품 계시: 창조 세상, 섭리, 말씀, 아들, 그러나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

욥의 불평: 1.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 역시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 >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가?(34:5-6, 10-37)

이 문제는 욥기의 중요 주제 중 하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공통 의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엘리후의 반응 역시, 이 말 때문에 튀어나옴(32:2)

엘리후가 마이크 앞에 욥을 두고, 세 친구와 모두 듣고 있음

2-4절, 한번 문제를 짚어 보자. 대상 지혜로운 자들, 지식 있는 자들(2), 욥과 세 친구 장로들

깊이 생각해 보자(3), 주제: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무엇인 옳은 것인가(4)

욥의 주장: 하나님이 나를 사악한 죄인 취급하며 재판정에도 나오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함.

욥의 말: 공정함을 빼앗아가셨다(34:5). 나를 향해 화살을 쏘셔서 상처를 내신다(34:6; 6:29).

엘리후의 말(7-9), 욥이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악한 자들과 한 패이다(8).

1.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10). 먼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10-15). 10절, 12절

소돔을 멸하려는 계획, 아브라함의 말(창18:23-25), 50, 45, 40, 30, 20, 10명

하나님이라면 완전해야 한다. 모순이 없어야 한다. 삼각형 원 No!, 직사각형 원 No!

사람의 길대로 갚으신다(11). 심지어 사람의 죄 자체가 사람을 덮치게 한다(시9:15-16).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13).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14-15).

우리의 죄대로 다루시면 모두가 곧바로 죽는다(애3:22).

하나님의 주권: 의로운 자인 욥 시험, 심지어 사탄도 마음대로 못한다. 바울에게도 병을 주시고 안

고쳐 주신다. 욥기에서 31회나 전능자

이를 통해 엘리후는 38-41장의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한다.

2. 이제부터는 욥에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정의를 집행하는 정부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16-20).

아마도 욥은 그 당시 정부에 참여해서 일을 함(29:7-17).

정부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우셨다(창9:1-7). 목적: 정의를 집행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의 정부가 의롭게 법을 집행하는가?

그러면 사회는 혼동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18). 롬13:1-7

정부에 관한 것, (주 안에서만) 순종한다. 산파들과 파라오, 엘리야와 아합, 다니엘의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 침례자 요한과 헤롯, 존 나스, 마르틴 루터 등 종교 개혁자

일반적인 것과 특별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면 항거해야 한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온다. 여기에 순종하면 죽는다. 이런 특별 상황이 있다.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3. 하나님이 정의롭지, 완전하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없다(21-30).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 인간 재판관은 한계가 있다(21-22).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보시므로 아무도 숨을 수 없다(시139:7-12).  
욥은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그래서 불필요(23). 원더풀  
우리가 알아야 할 것(23). 불평자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신의  
실수, 사람의 힘으로 고쳐야 한다. 유포피아 건설, 이상향, 아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23), 우리의 정부 등 모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받고 있다.

교회가 타락한다고 한다. 목사가 타락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잘못인가?

아니다. 성도들의 잘못, 타락, 성도들 수준에 상응하는 교회와 목사를 받을 뿐이다.

재판관들의 시대, 본인들이 원하는 치리자를 받는다.

4.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29).

욥의 불평: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얼굴을 숨기신다(9:11; 23:1-9). 엘리후의 답변(29).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노아 당시 120년, 가나안 백성의 죄 무려 400년

개인도 국가도 오래 참으신다(29). 그러나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얼굴을 숨기신다. 이스라엘에게는 근 2000년이나, 그러나 드디어 일을 시작하셨다.

늦더라도 심판이 없으면 위선자가 득세하고 백성이 멸망한다(30).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31-33).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욥은 회개해야 한다(31-33).

하나님은 회개를 가장 기뻐하신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대하33장), 12세에 통치, 55년 동안,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  
히스기야가 치운 모든 우상 다시 세우고 자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고 지나가게 하고 요술, 마술 등  
결국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감

그에게 기회를 줄 때 그는 회개함(33:10-13), 성전 보수 등, 이런 자도 고쳐 주신다.

회개하기 전에는 시련이 계속된다(34-37)

욥에게 말하라고 하나(33) 그가 답을 안 하자 그를 세차게 비난함(34-37).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대하28장, 20세 통치, 16년 간, 므낫세와 동일한 일(28:1-4)

고통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돌아서지 않음(29:22).

### 결론

왜 엘리후는 이렇게 다소 거칠게 이야기하는가?

이 주제가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욥이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계속해서 시련을 겪을까 봐  
우리의 확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인류 멸절, 가나안 정복 시 아이들과 여자들, 지금 이 시간에도 팔레스타  
인과 유대인 문제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정의가 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다.

가장 감사한 것, 만일 하나님이 정의로만 나를 다루셨다면 이미 지옥행이다.

정의를 베풀면서도 소돔을 치실 때 롯을 구해내신다.

노아와 8명을 구해내신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그 결과 사랑이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롬3:21-26).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악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악한 자들과 떨어져 살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악과 떨어져 살 수 있다(고전6:9-10; 갈6:19-21).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 회개하고 믿고 감사해야 한다.